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6 0506

Vol. 117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20th Event_ 인하대병원 스무 살, 축하해!! Medical Point_ 대장암 Celebration Talk_ 20년 유방암 환우와 함께 Today INHA_ 20년, 지난 시간과의 동행



ANNIVERSARY
INHA UNIV. HOSPITAL





12



24



29

인하대병원

May

+

Jun 2016 Vol.117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 04 **개원 20주년 기념사**
- 05 **20th Event** 인하대병원 스무 살, 축하해!!
- 08 **Medical point** 대장암? 대장·암!
- 12 **Celebration talk** 20년 유방암 환우와 함께
- 16 **Today INHA** 혈액암 수기 -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 18 **개원 20년, 지난 시간과의 동행**

사랑 두 걸음

- 22 **Special people** '사랑할수록' 부활의 3대 보컬 김재희
- 24 **Special report** 개원 20주년 기념 생명존중콘서트 현장을 가다
- 26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16 - Green Hospital
- 29 **INHA Focus** 아동의 발달장애

나눔 세 걸음

- 32 **특목 약물상담** 금연 보조제
- 33 **인하 리포트** '인하 새싹 방문의 날'
- 34 **Celebration message** 협력병원's letter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파랑새 소식**
- 39 **Info desk** 건강교실, 교육안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먼 길 돌아 고단하셨을 그대를
수천 리 한걸음에 나는 듯 오실 그대를
가로막고 선 시간
강물보다 더 슬렁대며
뚝방을 넘기고픈 거친 옥기를 잡초에 으깨며
여리디 여린 들꽃을 한 줌 꺾어 가슴에 얹고
살갑게 붙여주는 바람을 주머니에 담아
그대 기다림으로 허기로우려
오늘을 기억하며
강보다 길게 더 길게 남은
세월을 기다림으로 채워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하대병원 20주년 1996-2016
INHA UNIV. HOSPITAL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표지_ Celebration Talk- 20년 유방암 환우와 함께

인하대병원보 2016년 5·6월호(통권 제117호) 등록번호 인천마01031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 홍보팀 디자인 테크포스
인쇄 금강프린텍 인쇄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032)890-2603 팩스(032)890-26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콘서트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여러 축하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오늘이 축하 마지막 행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근속 직원, 모범직원 및 공로부서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속 20년을 맞은 분들은 오늘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 하나가 우리 병원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함께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은 자기의 꿈을 펼치고 동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성인으로서의 꿈과 책임을 더해가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침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지역사회의 기대도 큼니다.

우리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인선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생겨남에 따라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우리 병원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획기적인 병원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병원의 20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지난 모든 과정이 오늘의 20년에 담겨 있습니다. 순간이 모여 역사를 만들 듯이 앞으로도 우리 병원의 역사를 위해 매 순간 꿈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20년을 함께 설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의료원장 김영모



낮설고 힘들었지만, 처음을 시작했던 곳...
꿈 하나 안고 '심' 없이 빛났던 누군가의 깊은 열정과 우리 모두의 꿈과 사랑과 도전,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는 곳이다.
스치고 지나간 것은 바람만이 아니다. 잘 건너온 것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였다.
다섯 글자 잘 지켜준 **인하대병원** 고마워~

'인·하·대·병·원',
수고했어!

스무살,

축하해!!

정다운
응급의료센터



인 | 인천의 한 병원이 있습니다.
하 | 하루종일 환자를 위해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대 | 대신 아파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병 | 병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
원 | 원하는 소망이 하나로 모이는 곳, 바로 인하대병원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병원은 미래를 향해 큰 도약을 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지켜질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함께 병원의 참된 모습을 반성하고 되새겨 봤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심학수
홍보팀



인 | 인천시민을
하 | 하늘같이 모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 | 대학병원 중에 최초, 유일,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병 | 병원의 넘버(NO.)
원 | 원(ONE - 엄지 척)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지향하는 인하대병원은 타 병원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자'의 다른 생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2차 산업에 의한 '발명의 시대'가 아닌 융합과 혁신의 '발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다른 꿈을 꾸며 실천하느냐가 생존과 더불어 성과를 파이 크기를 결정합니다.

최상미
임상시험센터(CTC)



인 | 인천까지 올라 왔심더~
하 | 하도 잘한다잘한다 하기에~
대 | 대구에서 예까지 왔다아닙니까!
병 | 병원에 와보이, 직원도 친절하고 의사쌤도 잘 봐주고(네)
원 | 원하는 병원 찾은 것 같심더

실제 있었던 환자의 경험에서 착안했습니다. 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분의 애절한 심정과 인하대병원을 선택함으로써 얻은 만족감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신희경
임상시험센터(CTC)



인 | 인하대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합니다.
하 | 하지만 그 고통이 같지는 않겠지요.
대 | 대신 친절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병 |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 만큼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원 | 원하지 않았던 질병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환자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인하대병원 모든 직원의 마음을 담아 환자분이 빨리 완쾌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경환
원무팀



인 | 인술(仁術)의 꿈
하 | 하늘에 닿아
대 | 대망(大望) 이루어라
병 | 병들어 서러운 자 없도록
원 | 원컨데, 청년 인하여! 새 20년 비상하자!

우리병원은 '지역사회 보은'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인천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대 회장님의 꿈은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 소외계층의 메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조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병들어 서러운 지는 없도록, 개원 20주년을 맞은 우리 청년 인하인들이 또 한번 힘차게 비상하길 소망해 봅니다.



김경빈
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팀

인 | 인하대병원이 어느덧 스무 살을 맞이하였습니다.
하 | 하하호호 기쁨과 슬픔, 역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자신도 이곳에서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대 | 대나무처럼 울고고 강직한 성품은 우리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단결된 마음과 같습니다.
병 | 병원에 오는 환우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병원
원 | 원석처럼 빛나는 인하대병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형묵
성형외과 전공의



인 | 인재를 키워주는 병원
하 |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병원
대 |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병 | 병원 중의 병원
원 | 원 투 쓰리! 고민없이 인하대병원으로 오세요☆



김성기
방사선 중앙학과

인 | 인하대병원이 나아갈
하 | 하루하루가
대 | 대한민국의
병 | 병원문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원 | 원동력이 되리라



조래정
약제팀

인 | 인천에서는 이미 최고 병원!
하 | 하고 많은 병원 중에,
대 |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병 | 병원 중의 병원~
원 |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여라~



유미애
서비스혁신팀

인 | 인하대병원에 들어서면
하 | '하하 호호 짹짹'~~
대 | 대학병원이라 병이 잘 치유돼서 하하~,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 친절해서 호호 짹짹~
병 | 병들어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
원 | 원없이 힐링하고 갑니다. 언제나 오고 싶은 인하대병원^^.



김상명
영상의학과

인 | 인하대병원의 오늘은
하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 | 대한민국을 넘어서 최고의 국제적인 병원이 되기 위해
병 | 병원 가족 모두는
원 |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노력합니다.



오미현
당뇨비만센터

인 | 인사드립니다!
하 | 하루하루 발전하여 벌써 20주년.
대 | 대망의 그 날이 왔습니다.
병 | 병! 더 이상 키우지 마세요.
원 | 원하시는 건강!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은실
임상시험센터(CTC)

인 | 인간존중의 실천
하 |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 마인드
대 | 대나무처럼 변함없는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의
병 | 병을 낮게 하며
원 |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줄 믿음직한 인하대병원!



양수철
교육수련실 인턴

인 | 인하대병원의 스무 살 젊음은
하 | 하늘의 푸르름을 닮았다.
대 | 대의, 중의, 소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병 |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욱더
원 | 원더풀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병원이 될 것이다



신은주
적정진료팀

인 | 인천의 자랑이 될 인하대병원
하 | '하하하 웃음꽃'으로 즐거운 우리 인하대 병원
대 | 대학을 우수한 성적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의료진들로 구성된 인하대병원
병 | '병이다 싶으면' 우리 인하대병원으로 오세요!
원 | 원하는 맞춤 진료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인하대병원이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인하대병원이 어느덧
스무살을 맞이하였습니다

인하대병원의 스무 살 젊음은
하늘의 푸르름을 닮았다



김순정
핵의학과

인 |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하 |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간 열심히 뛰어온
대 | 대학병원! 인하대병원!
병 | 병원 중의 제일 뷰티플 넘버
원 | 원(1) 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인 | '인간존중'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하 |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 |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 |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를 우리의 가족처럼 느끼기에
원 | 원하는 것은 하나, 단지 환자의 행복이기 때문에 인하대병은 그 어려운 것도 해내게 됩니다.



김복자
동10병동

인 | 인간존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니
하 | 하늘도 감동한 이십 년
대 | 대한민국 으뜸 병원이 되었습니다.
병 | 병원문화 선도하는 인하대 병원
원 | 원대한 꿈 세계 제일을 향해 또다시 도약합니다.



서미경
마취회복실

인 | 인하대병원 20살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 | 하루를 당신의 심장고 함께 힘차게 뛰며,
대 | 대단한 열정과 빛나는 젊음으로 세계로 나아가려합니다.
병 | 병원! 인하대병원을 기대하세요!
원 | 원한다면 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옥금
동16병동

인 | 인하가족여러분
하 | 하하하!!! 인하대병원이 20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대 | 대학병원 최초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도하였고
병 | 병원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JCI, 의료기관 인증평가, 유일한 메르스 환자 완치 등
그 어려운 과정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원 | 원년 멤버들에게 성년식을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인하가족 파이팅!!



김효수
동16병동

인 | 인하대병원
하 | 하루하루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 | 대단한 병원입니다.
병 | 병신년 올해도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원 | 원동력으로 병원을 발전시킵시다!



임성아
동16병동

인 | 인천항을 마주하고
하 | 하늘과 닿아있는, 인천을
대 | 대표하는 인하대병원
병 | 병을 치료하고 밝은 미래를
원 | 원한다면 인하대병원으로 오세요.



정아라
동16병동

인 | 인천 최고의 병원
하 | 하늘 아래 최고의 병원
대 |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병 | 병원 중에 최고의 병원, 인하대병원의 20주년을
원 | 원없이 축하합니다!



전산운영팀

인 |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해
하 | 하나로 화합하여
대 |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로
병 | 병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원 | 원대한 꿈을 펼치는 인하대병원!

원하는 것은 하나,
단지 환자의 행복이기 때문에
인하대병은 그 어려운 것도
해내게 됩니다

인하대병원 20살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를 당신의 심장고 함께 힘차게 뛰며...



대장암? 대장..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최근 종영된 모 드라마의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되뇌었던 대사 중의 일부이다. 결코, 반길 수만은 없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최소한 우리나라 남성에 있어서는 대장암이 암의 대장으로서 ‘그 어려운 걸 해낼 것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982년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난히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는 위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2009년 이후 대장암이 위암의 발생률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지만(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09년 국가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남성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암 발생률이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글 최선근 교수 / 인하대병원 외과 대장항문분과

1980년 처음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중앙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그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된 1982년도에만 해도 우리나라 남녀 전체에서 대장암의 연간 발생률은 1,318명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보고인 2013년도에는 27,618명으로 31년 만에 21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82년 보고에서 남성의 대장암(5.8%)은 위암(29.6%), 간암(16.1%), 폐암(11.2%)에 뒤이은 4위에 불과한 미미한(?) 암이었으나 2006년에는 간암을 제치고 3위로, 2008년 이후에는 폐암마저 무너뜨리고 위암에 이은 2위의 암으로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대장암은 남녀에서 각각 2위와 3위의 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림 1).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던 대장암의 위상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대장암, 마침내 ‘위암’을 넘어 1위를 향하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암등록사업의 1999~2013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4년 암 사망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대장암이 마침내 위암의 위상을 넘어 1위의 암으로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결과는 ‘한국의 2016년 암 발생과 사망률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저명 국제 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소개되었다. 올해 전체 대장암 신규 환자 예측치는 37,968명 중 남성 대장암은 23,406명으로 위암 환자수(23,355명)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성에서는 대장암이 14,562명으로 3위, 위암은 10,976명으로 4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간한 보고서 ‘2010 GLOBOCAN’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대장암 발병 순위는 이미 2008년에 10만 명당 46.92명으로 184개 대상국 중 슬로

바키아(60.62명), 헝가리(56.39명), 체코(54.39명)에 이은 전 세계 4위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로서 ‘대장암의 원조국가’라 할 만한 미국(34.12명)을 압도하고 있다(그림 3). 여성의 경우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10만 명당 25.64명으로 역시 원조국가인 미국(25.03명)뿐 아니라 영국(25.28명), 일본(22.78명)보다 더 높은 전 세계 19위로서 대장암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이미 최상위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겹살과 소주’, 최단기간 대장암 다발국가 불명예

최근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서구식 생활과 식습관 패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장암 발생 다빈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서구화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잘못된 음주·흡연문화로 최단기간 대장암 다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 대장암 발병률의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육식·음주 위주의 잦은 회식문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의 비율이 전체의 16.6% 수준으로 여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역시 30~40대 장년층의 ‘삼겹살과 소주’로 대표되는 왜곡된 음주문화와 ‘사모정·오류드’로 회자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유전적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큰 역할

대장암의 발생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임상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가족력 등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빈도는 5~10%

그림 1 2013년 우리나라 성별 암 발생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5년 12월)



그림 2 2016년 우리나라 성별 암 발생분율 예측치 (출처 : 국립암센터 2016년)



그림 3 전 세계 및 아시아 남성 대장암 발생률 순위
(출처 :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2010년)

한국 남성, 대장암 발생률 전 세계 4위



출처 : GLOBOCAN 2008, IARCPress, Lyon, 2010 조사대상/조사기간 : 세계 184개국(2008년 기준)
한국 남성 대장암 발생률 : 해당 수치는 2007년 발병률 기준으로 예측된 수치이므로 발표자료에 포함된 국가암등록사업 자료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한국 남성, 아시아 대장암 발생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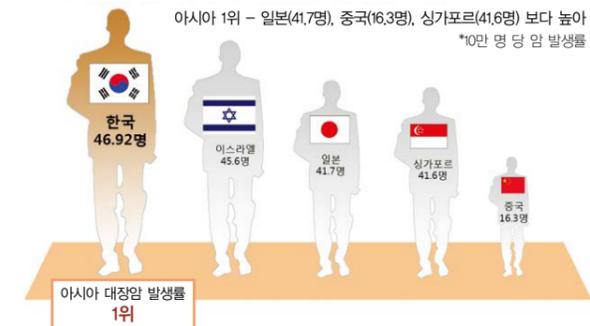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의 젊은 대장암 환자비율

한국의 젊은 대장암 환자, 선진국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



2009, 대한대장항문학회 서울경기소재 6대 병원 분석
영국 www.statistics.gov.uk 미국 SEER(http://seer.cancer.gov/index.html)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위험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섬유소가 함유된 음식 섭취를 많이 할수록, 또한 육체적 활동량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유병률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

다. 이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과 육체적 활동량의 증가에 따른 장운동의 향진이 대변의 장내 통과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잠재적인 발암물질과 대장 점막 사이의 접촉 기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가설에 근거한다면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 등과 같이 섬유소가 부족하고 고지방, 고열량 위주의 서구식 식단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또는 도정 되지 않은 곡류 등과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지혈증과 대장암 관계, 세심한 주의 필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과 대장암과의 인과관계가 일부 밝혀진 바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지혈증이란 혈중 지질(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의미하며 고지단백혈증은 혈중의 지단백질(고밀도 또는 저밀도 지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흔히들 이러한 콜레스테롤, 지단백질 등은 심혈관계와 연관이 깊어서 혈중 내에 이들 성분이 과다하게 증가될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대표적인 성인병인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혈중 지질이나 지단백질은 대장암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담즙산과 더불어 혈중 내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를 체내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대장 내 세균이 과도한 분해 작용을 촉발하여 유해한 독성산물을 생성시키고 이는 정상대장 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져서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좋은 지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고밀도 지단백질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동맥경화 방지효과 외에도 대장암의 발병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고밀도 지단백질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내의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지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저밀도 지단백질이나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어 주는 청소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국립공중보건 환경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서 고밀도 지단백질의 수치가 16.6 mg/dL씩 상승할 때마다 대장암의 위험이 대략 2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종 1cm 1% 그러나, 2cm는 40% 발전 가능!

대장암은 환경적 또는 유전적인 원인과 관계없이 선종성 용종이라는 전암성 병변으로부터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장 용종을 발견 즉시 절제할 경우 전체 대장암의 80% 정도는 예방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발견 당시 직경 1cm 이하의 용종은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1% 정도이나 반면에 2cm 이상의 용종은 많게는 40%에 이르고 있으며, 40세 이상의 정상인에게서 이러한 용종의 발생 가능성은 20~30%로 알려져 있다. 또 일단 대장암으로 발전하였다도 암세포가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1기) 대장암의 경우 완치율(5년 생존율)이 평균 95%에 이르는 만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암성 병변이나 초기 병변이었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대장내시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대장내시경은 무증상일 때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지만 용종을 조기 발견하여 제거 후에도 체계적인 추적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강조된다.

40세 이상, 3~5년에 한 번 내시경 받아야

대장내시경의 조기검진 방법은 일반 위험군(건강한 수진자)일 때에는 50세 이상의 남녀에서 5~10년 정도의 검진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다 이른 연령대에 비교적 잦은(3~5년 간격)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진이 권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환자의 연령대가 낮고 발생률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방법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만 40세 이상의 성인이 2~3주이상의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거나 배변 시 점액 또는 항문출혈이 동반될 경우, 또한 치질, 장염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만 4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대변잠혈 검사나 직장수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 3~5년에 한 번씩은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 추적검사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선종 3개 이상일 경우는 1년 후, 3개 미만의 저위험 선종은 3년 후, 기타 용종이나 용종이 없는 경우에는 5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치료보다 예방, '대장암'이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못하도록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특히 암에 있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장암의 발생 원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개선 가능한 환경적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대장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백미나 흰 빵 대신 잡곡밥과 통밀빵을 먹고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버섯류의 섭취를 늘리며 그에 반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붉은 색 육류와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 섭취는 줄인다. 그러나 무작정 육류를 줄이기보다는 이를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족해질 수도 있는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도록 한다. 또한 적당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여 또 다른 대장암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비만도 예방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도록 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이와 같은 신체활동만으로도 대장암 위험감소 효과는 약 30~40%에 이르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암예방학회에서는 올해 3월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그림 5). 대장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또한 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세로 자리매김한 '대장·암'으로서의 '대장암'이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없기를 기대하면서 필자의 소소한 글을 맺을까 한다.

•문의 | 외과 ☎ 032-890-2250

그림 5 대장암을 이기는 10가지 식생활 및 건강수칙(출처 : 대한암예방학회 2016년)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

1. 과식하지 않는다.
2. 백미나 흰 빵 대신 현미와 잡곡밥, 통밀빵을 먹는다.
3. 채소, 해조류, 버섯을 자주 먹는다.
4. 과일을 매일 적정량 먹는다.
5. 소고기, 돼지고기, 육가공식품은 적당량만 섭취한다.
6. 고기 구울 때 숟불을 피하고, 고기가 타지 않도록 한다.
7.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먹는다.
8. 칼슘, 비타민D, 비타민B를 충분히 섭취한다.
9.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한다.
10. 음주를 줄인다.



내 몸 안의 명의 신뢰, 나의 유방암 명의 김세중 교수 잃어버린 작은 하나를 채우는 핑크빛 공정

유방감상선외과센터 김세중 센터장은 20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자신의 환우 세 분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마음을 전하는 김세중 교수 & 한미숙 간호사,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가슴의 짐을 보듬어준 고마움을 쏟아내는
세 여성 환우와의 이야기는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참석자_ 의료진 | 김세중 교수, 한미숙 간호사

유방암 극복 환우 | 황국지 님(72세), 김영재 님(72세), 정재윤 님(53세)

*1996년 유방암으로 전절제 수술과 항암치료 12번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환우분입니다.

기획_ 김옥주 차장(홍보팀) 진행_글 이정희 에디터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유방암 수술 동기(?)로 알게 되어서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된 황국지·김영재 님이 먼저 오셨다. 오늘의 막내 정재윤 님이 ‘언~니’를 의치며 들어선다. 마치 여고동창생처럼 마냥 반갑고 신난다. 진료를 막 끝낸 김세중 교수가 들어서자 누구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허그가 이어진다. 그렇게 활짝 웃으며 두 팔 벌려 세 여인을 안아주는 김세중 교수의 웃음과 액션은 따뜻함, 그 이상이다.

느닷없이 찾아 온 한 쪽 유방의 가슴앓이, 아프다

진행자 오늘 이 시간은 아마 환우와 의료진이 함께 하는, 인하대병원 개원 이래 최초 토크자리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김세중 교수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여전히 밝으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한미숙 간호사 오늘 건강하게 뵈어서 기쁩니다. 김영재 님은 지난 3월 파랑새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죠.

황국지 님 가장 힘들 때 교수님께 모두 맡겼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교수님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저는 그 당시 우연히 TV방송을 보고 자가진단을 해봤어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유방이 크거든요(일동 웃음). 뒤통 잡혀서 가슴이 퍽 내려앉았어요.

김영재 님 저는 인하대병원이 잘 지었다는 소문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여기서 검사하면 모든 병이 다 나오겠다 싶어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정재윤 님 저는 30대의 일이나까 제일 어린 나이에 걸렸네요. 큰 애 낳고 꾸물꾸물하다 둘째 출산하고 돌 무렵쯤 남편이 만져서 발견했어요.

진행자 부부 금실이 좋으신가요(일동 웃음)?

정재윤 님 꼭 그렇지는 않아요(수줍은 웃음). 우리 김세중 교수님

인하대병원 최초 환자와 의사가 함께 하는 이야기. 잘 치료해주고 잘 이겨내 준 서로가 고맙다.



공공 숨기고 혼자 가슴앓이도 심했지만 잘 이겨낸 **황국지 님**

세심한 마음까지 읽어내고 다독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한미숙 간호사**

은 세종대왕 이래 ‘세중 교수님’ 이시잖아요(일동 웃음). 그래서 교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완치 될 때까지 다른 병원 안가고 여기 다닐 거라고 매달렸어요. 제 정신과 상담까지도 세중 교수님한테 다 쏟아냈어요.

유방암 진단, 김세중 교수에게 수술 받으러 돌아오다

김세중 교수 김영재 님 말씀대로 개원 당시 에스컬레이터 2대 있는 좋은 병원이었습니다(일동 웃음). 당시는 암 진단을 받으면 믿기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갔다 오시곤 했어요. 또 진단 후의 불안함이 많은데 여기 우리 한미숙 간호사가 저 대신 환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한미숙 간호사 교수님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진료실에 있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진료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설명해드립니다. 막상 진단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고민할 때 작은 도움이 되어드리는 거죠.

황국지 님 ‘유방암’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제 어깨를 감싸주는데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진단을 받아서 난감했어요. 주위 시선도 그렇고 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말했더니 큰아들이 길병원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는데 너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김영재 님 저도 아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하자고 했는데 ‘김세중 선생 아주 좋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다. 맘 놓고 거기서 해라. 인천인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고 그쪽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설도 아주 잘 해놓았고 인하대병원이 딱 맘에 든다고 했거든요.

38세에 혼자되었어요. 애들이 셋인데 아직 한 명을 결혼시켜야 해서 ‘아직 죽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참말로 교수님이 좋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아픈 한 쪽 유방과 아린 가슴을 치료해 낸 그녀들의 명의 김세중 교수

황국지 님 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버지한테만 가라고 했어요. 둘째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병원 허락받아서 큰애 결혼식 올려주고 얼마안가 남편 장례를 치렀네요.

김세중 교수 우리 황국지 님은 저한테 수술 받고 김철수 선생님한테 항암치료 받고 다시 저한테 오오는 동안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잘 견디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쪽 가슴 잃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김세중 교수 당시 1996년도는 전국적으로 3,800명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2만 명 발생합니다. 세분 모두 임파선은 괜찮아서 다행이었고 그땐 무조건 전절제였지만 요즘은 최대한 유방을 살리려고 해요.

정재운 님 저 같은 경우도 암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목 디스크도 오고, 실리콘을 넣는다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래서 정기검진 올 때마다 교수님을 많이 귀찮게 했어요. 여기저기 아픈 원인은 잃어버린 '유방'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최근에 배의 지방으로 재건 수술 했어요. 20년 만의 일이네요.

김영재 님 그래서 날씬하구나(일동 웃음)~

정재운 님 아니에요. 살이 많이 찼어요. 세종 교수님이 해주시면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소견서 받아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했어요. 깔깔대고 웃으면 아직 힘들어요(하하). 여러 과 선생님들과 상담만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김세중 교수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결과를 기도하며 소견서 써드렸어요. 지금은 아마 유방크기를 크게 만들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줄어들고 감각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유방이 큰 경우 한 쪽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원하고 한쪽은 축소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유두 감각은 차차



잘 지었다는 인하대병원 구경 왔다가 진단, 그러나 초 긍정으로 이겨낸 김영재 님



자신의 멘토인 김세중 교수의 바짓가람이(?)를 잡고 늘어졌다는 정재운 님

돌아오는데 처음과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재운 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96년 이후 교수님은 저에게 정신적인 지주예요. 살만 빼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힘드네요. 요실금 수술, 자궁 물혹, 지금은 골반염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된 이유도 이제 숨기고 움직리지 말고 알리면서 적극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국지 님 맞아요. 완치하려면 우선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김세중 교수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재운 님 늘 불안한데 교수님 얼굴을 보면 온화하신 부처님 같아서 걱정이 사그라져요(웃음). 부끄럽고 충격이 커서 어디서 상담해야할지 모르는데, 쏟아내는 대로 다 받아 주시니 이런 선생님 흔치않다 생각해요. 명의로 TV에 나올만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김영재 님 맞아요. 파랑새 모임에 오면 항상 웃으시고... 항상 고맙고 반갑고 그래요.

핑크빛 한 쪽, 부부가 함께 채워 나가야...

김세중 교수 20년이 됐으면 유방암에 대한 불안함을 벗어나서도 됩니다. 보통 재발 위험을 10년 정도 보는 데, 이제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남편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수술 모습을 빨리 보여 줄수록 부부관계도 좋고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정재운 님 10년 정도까지는 남편, 딸 둘에게 안보여 봤어요. 딸이 커서 '엄마, 괜찮아~' 하는 거예요. 이젠 같이 등 밀어 주고 그래요. 대중탕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수건으로 한쪽을 늘어뜨려서 가리고 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혁' 하고 놀라게 돼요.

김영재 님 난 당당해! 대중목욕탕, 수영장도 그냥 다녀요! 나 같은 사람 많아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바람을 못 뿜어(일동 웃음). 36년간을 그냥 살았지...

정재운 님 안보여준 이유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만 쳐다보니 감추

게 돼요. 자존감 하락 원인이 유방이었던 것 같아요.

김세중 교수 혼자만 끙끙대면 우울증이 생겨요. 나를 밖으로 자꾸 끌어내야 합니다. 파랑새 같은 환우회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남편과 함께 진료 때마다 꼭 같이 오시는 몇 분이 있어요. 내가 소홀해서 늦게 발견했나 하는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잘 도와주고, 들어주고, 간혹 꽃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한미숙 간호사 아내를 위한 작은 배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도와준다고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형적으로 환자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살아요~

김영재 님 면역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해요. 남편 없이 15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얼마나 맘고생을 했겠어요? 수술 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김세중 교수 덩동맹입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큰 적이죠. 긍정적인 생각 좋습니다.

황국지 님 내 스스로 이겨나가야 해요. 첫째는 뭐든지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종교생활이 큰 의지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 기름 참 좋아했는데 과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거 중요해요. 셋째는 부지런히 움직이자! 그러면 지켜주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중 교수 역시 덩동맹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 참 좋아요

정재운 님 거절을 잘 못하는 거절증후군이 있어요. 보기와 다른 가면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할까봐 아픈 척도 안했어요. 지금은 싫으면 안하고 그렇게 살아요.

한미숙 간호사 우리 병원 개원 20주년 슬로건이 '건강한 나, 행복한

우리 입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 어떤 교수님은 병이 왜 걸렸나?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를 고민 말고, 지금 내가 해왔던 습관 중에 잘못된 것 하나를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김세중 교수 의사 말 잘 들으면 잘 살고 의사를 따라면 못사는 거 다들 아시죠?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일동 웃음).

김옥주 차장(홍보팀) 여러분의 토크를 들으면서 한쪽 유방이 없어진 만큼 자존감 없어졌다는 말씀이 애잔합니다. 유방암 극복 20년 되신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보니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싶어요. 잘 이겨내신 원동력은 여러분의 넘치는 '긍정과 감사'네요.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으신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이만한 산증인이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정말 멋지십니다(일동 박수).

사람의 몸 안에는 명이가 100명 있다고 한다.

20년 전 '유방암' 진단받은 세 여성의 내 몸 명이는 '긍정의지와 내려놓는 감사'였다.

그리고 김세중 교수는 바로 그녀들의 명의였다. 또, 옆에서 여성 환우의 세심한 마음까지 읽어내고 다독이는 한미숙 간호사의 따뜻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수술 실적이 좋거나, 유명한 병원의 의사라고 해서 완치율이 100%는 아니다.

오늘 이 토크 자리는 개원 20주년 기념 최초로 가져본 시간이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좋은 관계를 '라벨' 라고 한다. '라벨' 보다 더 깊고 강하고 따뜻한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아쉽다.

'건강과 행복'의 따뜻한 소망을 담은 김세중 교수의 선물



가장 힘들 때 만난 김세중 교수와의 허그 인사



우리는 암이라는 ‘역경’을 ‘경력’으로 만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병원과 7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재간동이 과학자 29살 박은주입니다. 예전에 혈액종양내과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수기를 발표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병원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글_ 박은주 /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중개연구센터

수기를 쓰려고 보니, 지난 시간이 생각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 쓴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원하는 것에 좀 더 귀 기울이며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글로 적어 놓고 나니 제가 그동안 건강을 되찾기 위해 했던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앞서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백혈병이 이름값을 하는지라 다른 환우님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세심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20살의 청춘! 애인도 없는데...내가 백혈병

병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이 당시엔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라 공부를 해야 했는데 마침 안가서 좋기도 하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여러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을 맞닥뜨리니, 저에게 남아있는 거라곤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단 이야기겠지만, 어린 마음에 이 글을 접했을 땐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이이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애인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지만,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물을 엮절렸을 때 스펀지로 다시 거뒀다면 다시 물을 모을 수 있잖아? 건강도 잃었으면 다시 얻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시간은 저를 많이 나약하게 만들었고,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해해줄지 걱정만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만의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건강 되찾기의 첫 번째는 마음치유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건강 되찾기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암 진료 상담실에서 지원해 주셨던 미술치료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 마음도 돌보고 다독이며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편하게 내 속사정도 이야기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차츰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치료 덕분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센터를 다니며 취미생활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살다 보니, 저만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마다 아픔 하나씩은 있는데, 너무 제 것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는 아픈 사람이나 대접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내가 제일 안타깝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했었는데, 이 건 지금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은 남을 더 생각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도 진정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과 지내는 삶을 살다 보니 다이어트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발병 전부터 워낙에 풍채가 좋았던 아이라,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남부럽지 않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습니다. 딱히 운동해본 것도 없고, 싫증도 금방 내는 편이라 뭘 해야겠다 생

각은 안했는데 자꾸 붙어나는 무게가 걱정되셨는지, 우리 김철수 교수님께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전, 말 잘 듣는 환자입니다. 언제 제가 수영장 다니볼까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당장 수영장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물에도 못 뜨던 아이가 접영배우기까지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으면 잘했을 텐데, 체력을 늘리는 것도 힘들고 더 이상 배우는 것도 없어 다른 운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이긴 하지만, 운동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운동이 걷도입니다(송도 태일검도관 관장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매력 있고 빠져들게 되는 요술 같은 운동입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진료시간에 교수님께 시대회 나가서 상도 타왔다고 이야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따기, 남친 만들기! 작은 꿈을 하나씩

그렇게 체력을 늘리고 나니 이젠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살고 있는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 잡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기도 벅찬 세상에 얼른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두 달 동안 헬스장에서 2시간씩 달리기 연습하면서 준비했던 20대 여성들만 달릴 수 있는 7 km 마라톤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체력이 약한 것이 콤플렉스가 되어 몸으로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조금씩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다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달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말자,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1시간 안에만 들어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친구보다 더 잘 뛰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를 계기로 차츰 과제를 늘려나갔습니다. 운전면허증 따기, 언니 결혼할 때 냉장고 해주기, 냉장고 해주려면 취업하기, 건강해지기, 남자친구 만들기 등등..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던 저에겐 모두가 다 막연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뤄나

갔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따고, 일자리 얻기 힘든 요즘 취업에도 성공해서 언니 결혼할 때 냉장고도 해주고, 교수님과 항상 상의하며 건강도 잘 챙기니 유전자 검사 수치도 좋아져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수기를 발표하면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고, 그 악기를 발판으로 제가 미술치료를 하며 받았던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쿨렐레 교실을 열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제가 뭐라고 (물론 소중한 존재지만) 일개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시고, 우쿨렐레 스승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도와주셔서 2년 동안 우쿨렐레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다. 다 소중한 분들, 살면서 평생 곱씹을 추억이 생겨 저에게 2년이란 시간은 행복 자체였습니다.

‘암’이라는 친구 덕에 소중한 인연 맺대!

제가 암에 안 걸렸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겠지만, 암이라는 친구 덕분에 전 지금 우리 김철수교수님과 이문희 교수님, 이현규 교수님과 인연을 맺고 우리 천사 같은 간호사 선생님들과도 웃으며 안부를 묻고, 저에겐 이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흔히들 살면서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첫발을 잘 내딛고 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전 정말 타고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생각, 자기합리화에 가까운 긍정적인 사고 건강에 좋습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지요? 우리는 암이라는 역경을 경력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예요. 이런 경력 가지고 있는 분들 흔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겨 냅시다. 파이팅!

20년, 스무살 넘어 희망의 꿈은 멈추지 않으리라!

1996-2016



▲ 1990. 3. 30
고(故) 조중훈 회장의 기공식 축사
"고(故) 조중훈 회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건강할 때 유지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익 추구를 배제한 인술을 지역사회에 베풀고 세계적인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 1991. 2 ~ 1995. 7
인하대병원 건축현장
1991. 2. 건축허가 득
1991. 4. 한진건설(주) 공사착수
1991. 9. SOM(미국)사와 기본설계 계약
1995. 7. 전산시스템 호주 TRAK System사와 시스템 도입계약



▲ 1996. 5. 27
인하대병원 첫날을 열다!
故 조중훈 회장의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이념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다. 지하4층, 지상 16층의 타워 포디움 형태와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은 '인간존중' 지향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1996. 5. 29
개원 이후 건강한 첫아기 출산
02시 23분 2.83kg의 여자아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 개원 이후 아기 탄생의 첫 순간은 병원 전체가 사랑으로 축복해 주었다.



▲ 1996. 5. 27
인하대병원 개원 이후 첫 수술 (외과 충수절제술)



▲ 1997. 6. 25
급성골수성백혈병 자가 골수이식 첫 성공
혈액암인 백혈병과의 싸움은 참으로 처절한 당시 상황이라 혈액종양내과 골수이식팀 (팀장 김철수 교수)의 성과는 희망이었다.



▲ 1998. 8
강화도 수해지역 의료봉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화군 남면 일대에 의료진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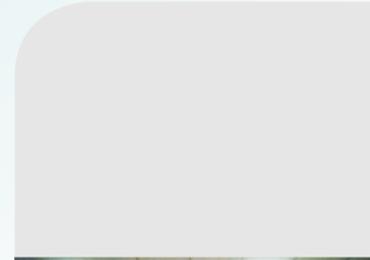
▲ 1999. 8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현장으로 찾아가 사진 촬영 후 액자에 담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

실패조차 아름다운 스무살이라고 했던가?

인간의 스무살은 '꽃다운 나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책임감'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최초 의료원 JCI 전 부문 인증이라는 성과로 국가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 때 텅 빈 병원 로비를 마주하면서도 인천 지역을 사수하는 최전방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용기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가는 곳이 인하대병원의 길이다. 건강을, 행복을 주는 빛나는 희망의 길이다.



◀ 2000. 1. 1
밀레니엄 베이비 탄생
건강하고 힘찬 울음으로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을 알렸던 세 아기의 퇴원 축하 인증^^



◀ 2000. 7. 5
"1분 더 설명하기 운동 발대식"
(인하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의료 문화 창출을 위한 자발적 운동 전개



◀ 2001. 3. 12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개원
전 세계로 연결되는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개원



◀ 2002 한일 월드컵 의료지원
공식 지정병원으로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응원함



◀ 2002. 11. 5
Digital Full-PACS 가동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가동
필름 환경에서 별개 장비로 구성되었던 MRI, CT, 초음파, PET-CT 등의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 획득한 영상을 진료, 교육, 연구 등에 활용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 2004. 9
전공의 workshop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리더의 역할을 위해 연차별 실시



◀ 2006. 4. 3
남녀고용평등사업장 노동부장관상
직종간 급여차 해소, 여성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실시 등 성차별 없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 인정



◀ 2007. 10. 2
인하대병원 병원학교 개교
(학교장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소아청소년과 병동 8층 서측에 개교. 사이버 강의시스템과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담교사 1명을 배치하여 입원으로 인한 학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규학력으로 인정 받음



◀ 2007. 12
태안반도 기름 유출 재해 지역 의료봉사
태안 파도리와 모항, 만리포에서 8일간, 자원봉사자와 주민을 위해 의료봉사 실시

1996 - 2016



열정과 신념으로 잘 버텨 온 '오들'



▲ 2008. 2
인천, 경기지역 최초 사이버나이프 가동
입원하지 않고 암 치료가 가능한
첨단 방사선 수술 로봇 사이버나이프
도입은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일이다.



▲ 2009. 3. 20
인하대병원 중국 청도시
국제진료센터 개소
국내 대학병원 최초 해외 국제진료센터로
소화기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3개 진료과 개소



▲ 2009. 12
제2회 세계인의 날 대통령 표창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헌신적 봉사료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 2010. 7
JCI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인증
2013. 6
JCI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재인증
환자 안전의 핵심가치 바탕으로,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인증에 성공



▲ 2010. 2. 9 ~ 2. 21
아이티 지진 이재민 긴급의료지원
인류애를 통한 희생과 봉사정신 실천으로
13일간 총 1,675명을 진료했다.



▲ 2011. 3. 3
SPECT-CT가동(2대)
감마카메라의 기능적 영상과 CT의
해부학적 영상을 융합시켜 체내 질환의
위치와 크기 및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최첨단 의료기기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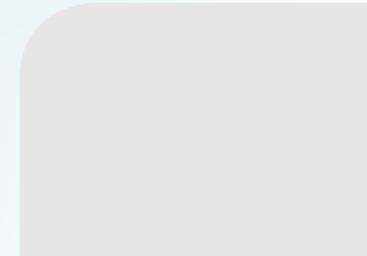
▲ 2012. 11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시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으로
응급의료시스템 및 예방관리체계 구축
토대 마련



▲ 2013. 4. 1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
작지만 귀한 생명을 위해 인천 내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2013. 7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시작
(現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상급종합병원 유일,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인력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환자중심의 입원제도 참여
2015. 9_ 458병상 2016. 5_ 505병상 확대



◀ 2015. 2. 22
병문안 문화개선 협약식
인하대병원,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
중구와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5. 3
환자중심 외래 전문질환센터 개소
2층, 3층 외래 공간 확장,
심뇌혈관질환센터, 척추·통증센터,
여성전문센터 등 진료과의
센터화를 통한 빠른 협진과 강화된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중심
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2015. 5
웅진군 도서 지역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골든타임 걱정없다'
도서 지역 의사각각대인 웅진군
백령병원을 비롯하여,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자월도 등 웅진군
도서 지역에 직접 원격협진
시스템 설치 운영



◀ 2015. 6
메르스 감염활동
국가적 위기에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학병원의 위상
정립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병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인하대병원 모든 의료진과 직원은
각자의 곳에서 지역건강을 지켜냈다.



◀ 2015. 메르스 후
인하대병원에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인하대병원을 응원합니다''



◀ 2015. 12. 4
'올해의 인천인' 기관부문 대상
인하대병원 메르스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새로운 가치 제시'



◀ 2015. 12
사회공헌활동 - 사랑의 연탄 나눔
연말의 사랑을 인하대병원과 함께,
'INHA Happy Plus' 나눔



◀ 자원봉사자의 손길
120여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병원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2016.
All New 인하대병원 이룬다
꿈의 신관 개소로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인하대병원의 전경

History of INHA University. Hospital

Kim Jae-Hee
김재희



생명의 노래로 함께 가는 길...

하늘의 '별 하나' 담다

가수 김재희와 인하대병원의 인연은 개원 20주년을 맞은 지난 5월, 숙명적인 '끈'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제대로 된 스폰서가 없었던 가수 김재희 씨에게 이번 인하대병원의 적극적인 후원은 첫사랑처럼 설레기만 하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박현식 작가

형의 자리를 채울수록 아픔과 그리움만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형 김재기의 자리에서 '사랑할수록'을 불러 스타의 자리에 올랐던 부활 3-4대 보컬 김재희 씨, 그는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내려놓고 '생명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재기형 하고 1평 반 정도의 작은 방에 들어 꼭 붙어서 한이불을 덮고 잤어요. 이제 많이 괜찮지만 죽어야 끝나는 추억인 거 같아요. 그리고 보니 제 주위에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친구였던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 투투로 활동하던 김지훈까지 그랬어요. 내 운명을 고민하다 문득, 생명을 위한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그가 기타 하나 들고 무작정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의 일이다. 스폰서도 공연 기획자도 콘텐츠도 없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면 불렀다.

세상을 내려놓고 싶을 때 산을 만나다!

부활 보컬 탈퇴 후 하는 일마다 좌절하면서 10여년간 불안과 우울증을 앓았다. 알코올중독에 빠져 극단적 생각까지 했고 건강도 망가져 가고 있던 그는 딸아이를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산행한 곳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은 제가 태어난 곳이라 잘 아는 산이죠. 또 가장 좋아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지키고 있는 대자연을 마주하는 것, 숨이 차오를 때까지 산을 오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희망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 용기와 위안을 준 것은 바로 산이었으니 말이다. 최근 방송촬영으로 인도네시아와 몽골을 연이어 다녀온 김재희 씨, 'KBS 영상앨범 산' 촬영을 위해 몽골 텡그리 사막을 다녀왔고 몇 년 전에는 스위스 융프라우를 오르기도 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높이 떠 있는 '별' 하나의 의미, 그에게는 어렵게 부여받은 '삶의 끈'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뜬 별 하나가 나를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내 음악에 별 하나를 담아 하늘의 별처럼 제 노래가 사람들에게 빛날 수 있는 거,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생명존중 노래의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하대병원과의 인연은 숙명적인 '끈'

이번 34회 공연을 맞은 그에게 드디어 따뜻한 손이 악수를 청한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인하대병원이 김재희의 생명노래에 힘을 실었다.



1 가수 김재희 씨는 병원 내 걸린 포스터 한 장도 귀하고 감사하다. / 아버지처럼 지켜주고 싶은 큰형 김재관 씨가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이틀 뒤는 아버지의 49제이기도 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재능으로 함께 사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행복이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인천 송도 트리이볼 야외무대에서 처음 같은 34번째 콘서트를 앞둔 그에게 만감이 교차한다. 뮤지컬 배우와 소프라노 등의 출연진과 경기뮤지컬학교 학생들 등 32명과 함께 김재희 씨는 1부에서 그간 만들어왔던 '생명의 노래'로 메시지를 전하는 첫 무대를 갖는다.

공연 후, 더 단단해지는 사명감

콘서트를 끝낸 그는 비워진 무대를 마음속으로 찾는다.

가수 김재희에게 어제의 공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내딛는 좋은 흔적이 된다. 이런저런 아쉬움과 반성, 그리고 한때 끔찍한 지옥 같았던 순간도 곱씹어 본다. 형과 친구의 죽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던 지난 시간, 도망가려 하면 더 지옥 같은 순간이 어느새 그의 앞에 마주하던 그때를...

김재희의 운명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에 그의 사명감은 오늘 밤 더 단단해진다.

지나가 버린 어제의 비와 바람은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파란바다 되어 함께 걷는 생명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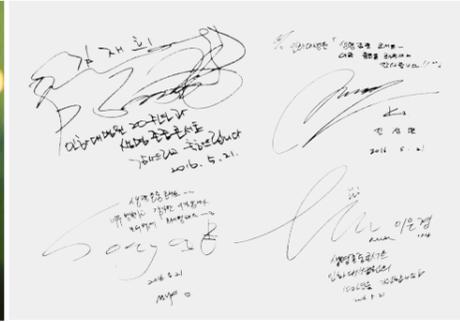
그래서 가수 김재희는 이런 깨달음이 모두에게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노래 위에 얹는다.

남은 체력과 감정을 바닥까지 쏟아내며 엔딩곡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의 얼굴빛이 파리하다. 허우적대며 고통의 시간을 치고 올라온 흔적이 슬땀 스친다. 그래서 오늘 공연은 더 벅차고 벅찼던 건 아닐까.

송도 트리이볼에는 작은 불빛이 갖가지 색으로 빛난다. 오늘 하루 잘 견디어 준 그에게 불빛 하나, 신께서 허락하길 소망해 본다.



북면가왕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의 주인공 12대 **기왕 소나**



준비 못 한 앵글곡 추가~ 그러나 흔쾌히 불러준 애절한 록발라드 '슬프도록 아름다움' **K2 김성민**



SNS에서도 깨알 같은 콘서트 홍보를 해준 **아나운서 이은경**



▲ **김재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1부>** 소프라노 **자매 윤예원&윤민영**, 뮤지컬 배우인 **최형석, 박인환 외 7명**, 그리고 **김현정 단장과 경기유지컬학교의 학생들 20명**은 김재희와 함께 '생명존중과 아동보호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뮤지컬로 전했다. 차곡차곡 써왔던 생명의 노래를 처음 불렀던 베타 무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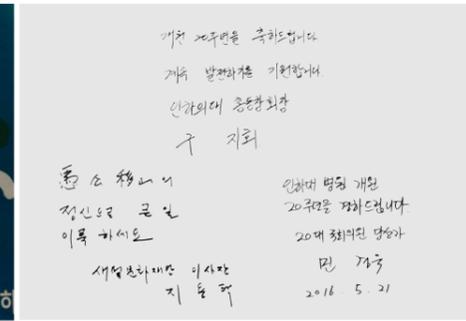
은몸에 그리움이 묻어나는 '사랑할수록'을 부르는 **김재희**



비쁜 와중에도 뜻을 함께 해주 의리, 영원한 부활맨 **꽃보다 정동하**



생명존중 콘서트 **희망나눔 기금 전달**



뜨거운 콘서트 열기는 **김영모 병원장**을 비롯한 **귀빈석도** 일어서게 했다.

▶ **캠페인**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인천금연지원센터의 상담 부스 운영

생명을 되살리는 움직임,
몸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송도의 랜드마크, 드라마틱한 트라이볼 야외무대!
생명존중 콘서트에 사랑을 더한 가수의 출격!
시민 마음은 이미 한걸음 앞으로, 함께 나는 사랑의 속삭임~
하늘, 바다, 땅까지 그 울림이... 라잇 나우!

사진_김종민 / 대외협력팀 | 최순열 작가

20th Anniversary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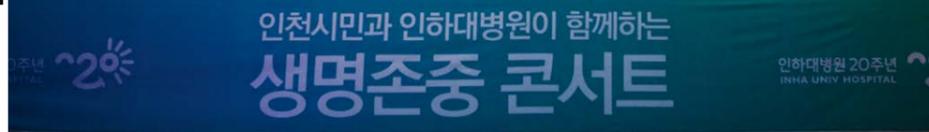
김재희를 토닥 응원하는 '**정동화와 소나**'

노래와 박수 댄스로 무대를 흔들어 놓은 **인하대병원 수간호사 중창단**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오케스트라 마이스터**

트라이볼 야경의 화려한 만큼이나 뜨거운 콘서트 열기는 밤샘 기세



귀한 생명 살리는 손으로, 사람이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그날까지...

글_ 임현경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사진_ 손보광 / 홍보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졸업식에서 법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간이나 연속으로 역대 최고기온이 계속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을 이루어냈습니다(파리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 이러한 협정 정신을 살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부인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도 말며, 제발 부탁이니 전등을 꺼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학생들은 환호로 답하였습니다.

GREEN INHA

인하 Green Hospital 테스크포스 팀



인하 Green Hospital 테스크포스 팀 출격

인하대 병원은 기후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술실에서 그린 하스피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그린 인하테스크포 팀이 꾸러졌고 올해 우리 팀은 아래와 같이 5개의 아젠다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팀뿐 아니라 각 센터와 의국에서도 분리수거 바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하 Green Hospital 2016년 아젠다 5

1. 전기 절약하기 - 미사용 조명, PC 모니터 끄기
2. 음식 잔반 줄이기
3. 병원 폐기물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4. 4개 층 이하 계단 이용
5. 수도물 절약하기

‘병원에서의 환경운동(Green Hospital)’을 이야기하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의료진 역시 낯설어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지구환경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라고 되물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자의 생명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병들어가는 지구까지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의료의 발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원폐기물들이 역설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살펴보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폐기물의 85%가 일반폐기물이며, 10~15%는 의료폐기물, 단 5% 미만만이 전염성 있는 위험한 의료폐기물이라 합니다(인하대병원 약 2천 명의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가 버리는 생활 폐기물과 사무실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일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생하는 85%의 일반폐기물은 적지 않은 부분이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의료 기구를 멸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구 포장재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닫기 전에 분리수거 한다면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음료수 캔, 병, 플라스틱, 종이, 컴퓨터 자판과 전자 기기, 책과 저널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환경 관련 NGO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GGHHN(Global Green and Healthy Hospitals Network)에서 정한 10가지 아젠다 중 3번째가 병원 폐기물 분리수거로 ‘zero waste’가 목표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달성만 된다면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며, 의료인들이 인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감량할 방법 고민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와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에서 2013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이끌어 녹색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는 저탄소·친환경 병원을 구

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친환경병원학 회’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들 대부분에서는 아직도 병원 폐 기물의 분리수거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발생량 전량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 중 의료폐기물의 정의가 모호한 경우 병원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 고,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분리수거를 시도하 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기 준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의 총량은 14만7600톤이었습니다. 그중 수 도권의 경우 폐기물 처리 능력은 4만9000톤에 불과한데 7만 9000 톤이 발생하여, 버려진 폐기물의 38%가량은 원거리 이동 후 처리 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10% 이상 의료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16년 현재 수도권 처리시설은 더욱 부족한 상 황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해야 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 확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자체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친환경병원학회 뿐만 아니라 여러 학회와 병원에서 그린 위원회를 두고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모든 의료인을 교육하 고 병원에서의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2014년부터 분리수거 캠페인 시작

2014년 인하대병원은 분리수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까 지는 폐기물 통이 의료폐기물 통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어 분리수 거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수술 종류에 따라 분리수거가 가능하 도록 재활용봉투를 비치하였습니다. 재활용 봉투의 등장은 적지 않은 의료진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의료폐기물 통 하나로 일원 화 되어 있던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 구체적으로 수술실 폐기물 분석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통 외에 재활용 통을 하나 더 비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clean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의료포장재에는 비닐 봉투, 종이 상자, 플라스틱, 종이 포장지, 넘버 5 플라스틱인 Blue wrap 등 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수술 시 사용되는 호흡서클도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되지 않았다면 분리수거 할 수 있다는 문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료폐기물로 버림

니다. 의료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실에서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멸균 생리 식염수, 알코올, 베타 딘 등을 담은 플라스틱 빈 통들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액이 다 사용된 수액 팩들도 재활용 가능하며 수술실 폐기물 중 무게로 는 27.7% (부피는 의료폐기물 보다 1.6배 더 큼)가 안전하게 재활용 가능했습니다.

전염성 환자 수술 시 의료폐기물의 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clean 의료기구 포장재는 환자와 접촉 전에 분리하여 의 료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전염병 확산을 줄이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약 30%를 전 국 병원에서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30%를 재활용하여 자원이 된다면 비용 절감, 자원 절약, 환경오염 감소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생명 살리는 그 손으로 지구도 살려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Stanford hospital, UCLA health, Pittsburgh Medical Center, Mayo clinic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센터를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병원의 재활용품을 비닐 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보내면 품목 별로 분리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특정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병원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 적 기업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손으로, 작은 정성과 배려의 마음 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를 살리는 분리수거에 동 참합시다. 우리나라도 병원 폐기물 분리수거로 ‘zero waste’ 가 되 는 그날까지...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하기
발달 늦은 아이, 기다려야 할까?



발달장애란 아이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여러 정신건강의학적 장애를 말한다. 여러 장애가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마다 모호하고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이란 아동의 성장에 따른 여러 기능적 발전 과정을 말한다.

글_ 이정섭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사진_ 김승봉 / 홍보팀 도움을 주신 분_ 오선영 / 학습치료 특수교사



1. 언어발달지체 아동 판별을 위한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P)
2. 현재 생활연령이 만 5세 1개월인 아동의 언어적 추론능력과 어휘력 향상, 올바른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한 치료 과정이다. 본 아동은 검사 당시 경계선 범위의 지적 기능과 관계, 재료, 언어 영역에서 경증의 병리 성향을 가지고 있고, 평균 하 범위의 독립적 사회적응 능력, 의사소통의 미흡, 제한된 범위의 관심과 낮은 명료도로 어려움을 보였다. 현재 10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 중이다. 조음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양한 문장의 표현이 가능하여 조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칭찬을 받으며 격려 가운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클리닉 방문을 여는 것이 행복한 아동이다. 언어적 추론 능력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인지력의 향상과 언어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아동이 치료의 목표로 접근한 이후 치료 상황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적극적인 표현을 하여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그림일기를 과제로 제출하여 언어표현과 사고력,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돕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4. 치료 아동들의 형태 변별과 색 개념 형성을 돕기 위한 교구이다.

5. 표현언어와 언어인지적 사고력의 지연을 보이는 아동들의 발달을 돕기 위한 그림자료이다. 그림의 상황이 말하는 문제를 알아내고 추리한 것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료에 사용하는 교재이다.
6. 아동의 언어 집중력 향상을 돕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3가지 언어적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7.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 1 학생의 치료 상황이다. 우리병원에 6세 때 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학생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래 친구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재능으로 미래의 재화를 잘 준비하고 있다.
8. 아동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할머니 생신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언어적 표현으로 이끌어 내며 의사소통의 방법을 학습한 이후,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의 현 상태와 가정에서의 연계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다. 발달선별검사에서 각 영역별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 표준편차 이상(약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는 장애의 진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DSM 5판의 분류에 따르면 신경발달장애 중의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의사소통장애, 운동장애 등 4가지 장애들을 보통 아동기 발달장애로 지칭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인지기능이 지체된 아동을 지적장애, 언어기능이 지체된 아동은 의사소통장애, 사회성이 지체된 아동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운동기능이 지체된 아동은 운동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쉽겠다. 아동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2.3%, 자폐스펙트럼장애는 1%, 의사소통장애는 6% 이상, 운동장애는 5% 정도로 발달기상의 주변 아동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애들이다. 발달장애의 원인은 각 장애별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 등에 의한 대뇌발달 이상 등이 있고, 후천적으로는 미숙아, 주산기 이상, 출생 후에 발생

하는 각종 대사이상, 감염, 출혈, 저산소증 등이 혼란 원인이다. 또한 생물물학적인 원인으로는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인 여건, 부모의 관심 부족이나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경우, 산모의 약물 중독, 음주 등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역별 소견

아동기 발달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소견은 다음과 같다. 언어와 사회성 발달의 경우에는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개인차가 많아서 보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언어발달에서는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되어도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 3세가 되어도 문장을 말하지 못할 때는 언어 발달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사회성의 경우는 3~6월에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맞춤을 하지 않거나 미소를 짓거나 웃지 않고, 돌무렵 달래기가 어렵고 매우 비협조적이며, 만 2세경에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소리를 잘 지르며, 만 3세경에 다른 또래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어울리지 못할 경우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운동 발달의 경우는 백일이 되어도 목을 가누지 못하고, 생후 5개월

무렵 뒤집지 못하며, 생후 7개월에 혼자 앉지 못하며, 9~10개월경에 붙잡고 서질 못하고, 돌이 지나 15개월 무렵까지 걷지 못할 경우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미세운동발달의 경우에는 생후 4~5개월 무렵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하거나, 돌이 되어서도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하고, 생후 18개월에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못 벗거나, 두이 되어서도 5개의 블록을 쌓지 못할 경우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발달 장애의 경우 한 시점에서의 발달 이상 보다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발달과정에서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일단은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특정 시기(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 5세)에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별검사는 진단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필요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특히 중요

발달장애는 예방이 특히 중요하며, 가임여성은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들을 중지하고 전염성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지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력에 발달장애,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별의 장애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 영역의 장애들이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심도도 아동마다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소아청소년 전문의, 재활의학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심리학자, 특수 교사 등)의 협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시행되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발달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권익에 대한 보호체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인천지역의 거점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상담 ☎ 032-890-3880

금단 증상을 줄이고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보조제



Q 금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흡연은 국제질병 분류 기준에 'Tobacco dependence'로 분류되는 약물 중독의 일종입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합니다.

금연으로 니코틴 공급이 중단되면,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침이 마르는 느낌, 소화장애, 변비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 금연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줄이고 금연을 성공하는 데 금연보조제가 도움이 됩니다. 금연 보조제는 일반 의약품인 니코틴 대체제와 전문 의약품인 경구용 제제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제제는 니코틴 패취, 니코틴 껌, 니코틴 트로키제(사탕) 등이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형	특징
패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를 통해 니코틴 공급, 니코틴을 일정한 농도로 제공 •1일 1매씩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
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한 간격으로 흡연하는 사람에게 적합 •서서히 씹다가 얼얼한 느낌이 생기면 껌을 잇몸과 뺨 사이에 둬(약 1분) •껌 하나당 2~30분 사용 가능
사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시간 간격(6주) → 2~4시간 간격(7~9주) → 4~8시간 간격(10~12주) •사탕 하나당 2~30분 사용 가능 •깨물어 먹지 않고 천천히 녹입니다.

본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금연보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명	웰부트린 서방정 150mg	햅픽스정 0.5mg/1mg
성분명	Bupropion	Varenicline
효능,효과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금연치료의 보조요법
작용기전	니코틴 금단 시 발생하는 dopamine과 norepinephrine의 감소 억제	니코틴이 결합하는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여 금연시 나타나는 욕구 차단
용법	금연준비 기간(1~6일) : 150mg 1일 1회 금연 시작(7일~7주) : 150mg 1일 2회	금연준비(1~3일) : 0.5mg 1일 1회 금연준비(4~7일) : 0.5mg 1일 2회 금연시작(8일~12주) : 1mg 1일 2회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개원 20주년 기념, 엄마 아빠 직장 방문 '인하 새싹 방문의 날' 행사 엄마, 아빠께서 일하시는 직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사진 손보광 / 홍보팀



인하대병원은 5월 27일, 지역사회를 위해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지 20년을 맞이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난 18일(수), '인하새싹 병원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굳건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준 전 교직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긍심을 고취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다.

이 날 초대된 20여명의 '인하새싹' 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작은 고사리손으로 경험하며 생명을 살리는 응급동작에 대해서 배웠다. 매사 진지한 눈빛으로 의료장비의 쓰임새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부모님의 직장을 방문한 소중한 추억을 기념했다. 새싹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 '새싹' 들이 바라본 인하대병원은 어땠을까. 또 새로운 20년 이 지나고 인하대병원과 새싹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행사를 마치고, 한 '인하새싹'은 "부모님께서 근무하신 병원이 20살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필요한 일이라는걸 실감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병원을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고객을 맞이 할 수 있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자녀들이 먼저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직원 행복 행사의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성년을 맞이하는 인하대병원이 교직원 가족들에게 먼저 자랑스러운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래 회장
(인천광역시사협회)

‘더 큰 병원으로! 인천의 공공의료와 사회적 안전망을 지켜주길’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사립대학병원 최초로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을 발족한 인하대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도 어려운 결단으로 아픈 환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인천시를 청정의료지역으로 사수하는데 온 힘을 쏟아주었습니다. 나이 20이면 청년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를 맞는 인하대병원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의 최전방에 서리라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의사의 최적화된 진료환경 발전을 위해 걸림돌을 함께 걷어낼 수 있는 ‘더 큰 병원’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정영호 회장
(인천광역시병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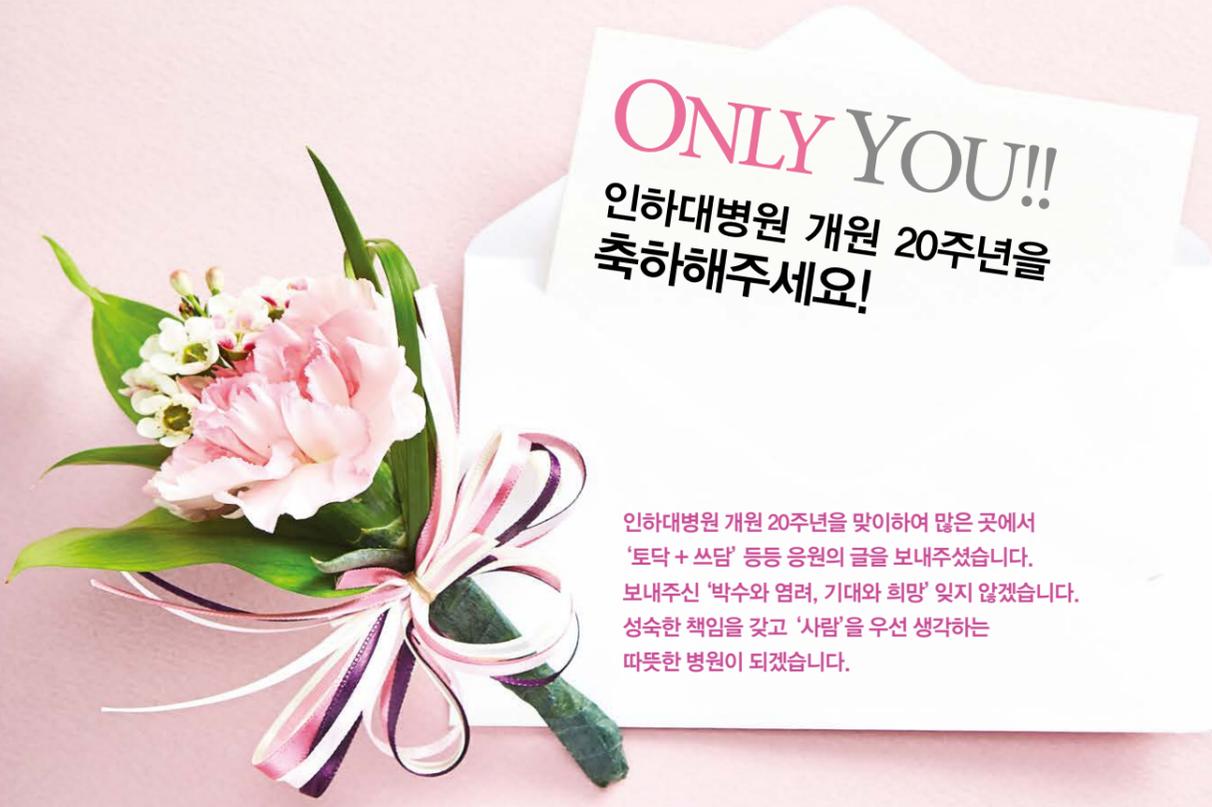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인하대병원은 지난 20년간 인천 의료계의 중심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인천의 어떤 병원보다도 빠르게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회적 책무와 책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의 현재를 보면 앞으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중수 병원장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다해주길!

항상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협력병원의 상생을 도모하며, 인천지역의 의료발전을 선도하는 인하대병원!!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인하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곳에서 '토닥 + 쓰담' 등등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박수와 염려, 기대와 희망' 잊지 않겠습니다. 성숙한 책임을 갖고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하현영 병원장
(나은병원)

창조적 병원의 롤 모델, 함께 건강한 웃음 주는 노력할 터

인하대병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추적 역할과 성심 있는 진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권역심뇌혈관센터로 골든타임 사수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창조적 병원의 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자병원인 우리 나은병원도 인하대병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책임과 혁신, 가치로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찾아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자 병원장
(나사렛국제병원)

인천을 지키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인천시민의 병원이 되어주기를

벌써 인하대병원이 개원 20주년이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인하대병원을 생각하면 잘 자란 늘 푸른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엇이든 내어주는 나무처럼 인하대병원은 인천에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인하대병원의 의연한 자세가 바로 그 이미지를 더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따뜻한 병원이고 싶다는 인하대병원의 바람처럼 인천을 지키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인천시민의 병원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준섭 병원장
(검단탑병원)

거친 지역 인천에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용이 되어주기를

인천권역심뇌혈관센터로서 지역 골든타임 사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그때 보여준 인하대병원의 결정과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천은 거친 지역' 이라고 했던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도 기억이 나네요. 풍운뇌우에서 용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거친 인천에서 더욱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용이 되어주세요.

유수일 병원장
(인천기독병원)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기를 기원!

새로운 계절과 함께 찾아온 인하대병원의 기쁜 소식에 한 마디 축하의 글을 남깁니다. 매번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함께하던 인하대병원 병원보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인하대병원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백승호 병원장
(인천백병원)

쉽 없이 생명을 살리는 송고한 일, 응원합니다!

지난여름 메르스 사태 때의 용기 있는 병원장님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종합병원 응급처치 후, 전원 되는 환자에 대해 심혈관센터에서 24시간 대기 치료에 임해주심은 생명을 살리는 송고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인하대병원을 응원합니다.

김태완 병원장
(인천사랑병원)

사회적 책무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에 박수를

1년 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때, 어려움을 무릅 쓰고 타 지역 발생 메르스 환자를 2차 감염 없이 치료하는 등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저희 인천사랑병원에서는 인하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진료과 장으로서 각 임상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난 5월 27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다가올 새로운 20년에 대한 비전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미래의 병원'으로 선포하며 모두가 행복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장기 근속자 및 공로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김명모 병원장은 "지역사회 보은의 숭고한 뜻을 담아 인천 시민과 함께해 온 인하대병원이 벌써 20년의 역사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과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정직한 모습으로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기념식에 앞서 지난 5월 18일 '인하새싹 병원 방문의 날'을 개최해 교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5월 21일에는 '인천시민과 인하대병원이 함께 하는 생명존중 콘서트'를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인천시민과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다.

또한, 26일에는 '개원 2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인하대병원에서 암을 치료한 이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80명의 환우를 초청하여 체험 수기 발표, 행복한 삶을 위한 특강, 웃음 치료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김명모 병원장 이란 방문, 현지 정부 암 병원 건립 사업 운영 지원 및 의과대학과 연구·교육 업무 협약 체결



김명모 병원장은 지난 4월 30일~5월 5일의 기간 동안 이란을 방문, 이란 정부와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암 병원 건립 지원을 협의하고 이스파한 의과대학 (Isfah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 & Health Service)과 연구, 교육 분야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명모 병원장은 "한국과 이란 간의 교류가 시작된 시점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현지 의과대학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양국 간의 의학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방문을 계기로, 현지의 보건 의료환경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민간 부문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여객기 갯벌 불사척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참여 - 대형재난사고 합동훈련을 통한 응급의료 역량 구축



지난 5월 18일(수) 인천해경 전용부대 인근에서 대규모 재난대비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해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하는 여객기 해상 불사척 합동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진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 관계기관 간 합동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구조역량을 재점검해 항공기 불사척 상황 대응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다. 민관군 20개 기관 관계자 300명이 참석하고 헬기를 포함한 총 35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협력 병·의원 의료진 대상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5월 17일(화) 오후 7시, 인하대병원 3층 제1강의실

에서 협력 병·의원 의료진 대상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된 인하대병원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총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여성암 환우를 대상으로 한 'Make Up Your Life' 행사 성료

2016년 5월 17일(화),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과센터(센터장 김세중)는 지역사회 여성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Make Up Your Life' 행사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항암 치료, 방사선치료로 피부톤의 변화, 탈모 등의 외모변화를 겪고 있는 여성암 환우에게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물하고자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유

인하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인하대병원은 2016년 5월 17일(화), 상급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 운영경험 축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기존의 운영 경험을 가진 병원이, 새롭게 정책을 도입하는 병원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공단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그간의 운영사례를 신규 혹은 참여 예정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여 각 병원을 교육한다. 인하대병원은 2013년 7월,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때부터 대학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전국 의료기관 중 최장 기간 동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5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병상을 505병상으로 확대했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병원 수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에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인하대병원은 3년여간의 운영 기간 동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 구축 및 환자 조기회복 촉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중증·급성기 질환 환자를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여러 의료기관의 롤 모델로서 본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어라이프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SK와이번스 야구팀과 '행복드림 홈런' 프로그램으로 행복의 가치 재확인



2016년 5월 11일(수), 인하대병원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와이번스 야구팀과 함께 '행복드림 홈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며 지역사회에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알렸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본 프로그램은, SK와이번스를 대표하는 내야수 박정권 선수가 올해 정규시즌 동안 기록하는 홈런 수만큼 인하대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및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박정권 선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프로그램의 포부를 밝혔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수립을 위한 한일 전문가 세미나' 성료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정한영 교수)는 지난 5월 3일(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수립을 위한 한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뇌졸중 재활의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 지견과 한국의 지역의료 연계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일본 지역의 연계체계 개발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정한영 센터장은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서비스 혁신팀, 어버이날 맞아 고객 섬김활동 "고객을 부모님처럼 섬겨요" 개최



5월 6일(금), 인하대병원 서비스혁신팀은 고객섬김활동 "고객을 부모님처럼 섬겨요"를 개최했다. 「고객섬김활동」은 개원 20주년 및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객(65세 이상)에게 감사, 건강의 상징인 카네이션(직원이 직접 제작)을 달아 드림으로써 감성 소통의 장이 되었다.

어르신께 달아드릴 카네이션은 18명의 CS리더 TFT팀원을 주축으로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주름종이를 자르고 예쁘게 필 꽃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겹으로 접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20주년 인하대병원" 리본을 부착하는 등 여러 단계의 수작업을 통한 정성이 가득 담긴 꽃이었다.

가정의 달, 환우들과 사랑 나누는 행사 펼쳐



인하대병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우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는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4일(수), 소아병동 환아들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해 환아 가족들과 플라로이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병마와 싸우는 환우와 보호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또, 5월 6일(금)에는, 65세 이상 환우들에게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통해 작은 감동을 선사했다.

베트남 라이찌우 성 종합병원 병원 운영과 의료기기 관리 역량 연수 지원



2016년 4월 29일(금),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KOFI(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와 함께 진행한

'2015 베트남 라이찌우 성 종합병원 운영 및 의료기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주간(4월 4일~4월 29일) 라이찌우 성 종합병원의 관계자를 초청해 병원 운영 및 실질적인 의료기기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수 과정을 성료하는 행사를 가졌다.

재활의학센터,

소외 이웃에 쌀 기증하며 지역사회 사랑 보답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과장 김명옥 교수)는 지난 4월 23일(토)에 개최된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20주년 심포지엄'에서 기증받은 쌀 630kg를 지역사회 소외 이웃의 후원을 위해 인천시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4월 29일(금) 전달했다. 재활의학과장 김명옥 교수는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기증하게 되었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윤승환 교수, 척추 질환 새로운 치료법으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윤승환 교수(신경외과)는 척추 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기술

개발'의 연구과제(주관 연구기관 : 바이오베터 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윤병학) 책임자로 선정되어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김시현 차장, 인천광역시 표창 수상



2016년 5월 5일(목),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시현 차장은 인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인천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김시현 차장은 인하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지원단에서 아동복지 증진과 사회공헌활동에 지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핵의학과 신재호 방사선사,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핵의학과 신재호 방사선사가 지난 5월 21일(토),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개최된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핵의학기술에 게재된 "동적 타액선 신티그래피에서 기능적 매개변수 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의 유용성" 연구 논문은 내용의 우수함은 물론 핵의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하게 되었다.



파랑새 소식

교육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4월 14일_대부도 야유회



5월 26일_개원 20주년 홈커밍데이 참석



개원 20주년을 맞은 생일잔치에 VIP, 귀빈으로 초대 받았다. 의료진의 약기연주 및 합창도 듣고 조영업 교수의 수기 발표와 격려사도 들으면서 인하대병원과 파랑새의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다.

다음 행사

- 6월 야유회 예정 시간, 장소 추후 공지 예정
- 7월 임원진 야유회(팀별 야유회 및 친목도모 모임)
- 8월 여름휴가

Info desk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6월 9일(목) 7월 13일(수), 8월 11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암의 이해 •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출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무료검사 및 금연/영양 상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4시	신관3층 예방관리센터 간병술기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35, 2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의 올바른 이해(심장내과 권성우교수) 	6월 7일(월) 10:00~11:00	강화군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6월 7일(월) 13:00~17:00	수봉공원 인공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 예방관리 	6월 22일(화) 10:00~11:00	계양 장기보건지소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신규과정 • 의료인 갱신과정 •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www.inha.com)	032-890-2130, 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p>2016. 3. 26</p> <p>출연: 소화기내과 김철길 교수 프로그램: 헬스데이뉴스 내용: 크론병이란?</p>	<p>2016. 3. 27</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MBN <천기누설> 내용: 봄의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p>	<p>2016. 4. 3</p> <p>출연: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 프로그램: SBS 스페셜 내용: 과도한 당분섭취의 위험성</p>	<p>2016. 4. 4</p> <p>World Best Safety</p> <p>출연: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교수 프로그램: TBN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p>
<p>2016. 4. 5</p> <p>출연: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 프로그램: CBS 기독교 TV <7000마라톤-예수 사랑여기에> 내용: 간경화</p>	<p>2016. 4. 6</p> <p>출연: 내분비내과 홍성빈 교수 프로그램: KBS <생생정보> 내용: 암을 이겨낸 간암관리</p>	<p>2016. 4. 18</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내용: 임신 중 구운 고기 먹으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p>	<p>2016. 5. 10</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광장 내용: 기형아 출산 갈수록 늘다. 환경요인 원인</p>
<p>2016. 5. 18</p> <p>출연: 갑염내과 이진우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모기 매개 감염병 경보</p>	<p>2016. 5. 21</p> <p>출연: 소아청소년과 권영세 교수 프로그램: EBS <나눔 0700> 내용: 멜라진 증후군</p>	<p>2016. 5. 22</p> <p>출연: 인하대병원 임직원 프로그램: 뉴데일리TV 내용: 개원 20주년 기념 생명중흥콘서트</p>	<p>2016. 5. 24</p> <p>출연: 서10병동 이소연 수간호사 & 의료진 프로그램: 연합뉴스TV 내용: 인하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p>
<p>2016. 5. 13</p> <p>Global INHA</p> <p>출연: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시현 차장 프로그램: TBN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인하대병원 20주년 기념 생명중흥콘서트</p>	<p>2016. 5. 16</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광장 내용: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p>	<p>2016. 5. 27</p> <p>출연: 인하대병원 의료진 프로그램: 연합뉴스TV 내용: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p>	<p>2016. 5. 30</p> <p>출연: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연계센터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내용: 인천시 함께 해요 금연 캠페인</p>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서비스진료			남문석	*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화*) (□)			(수, 금) (월, 수, 목)		
	종양내과	허윤석	* 위암, 소화성 궤양	월, 수	월, 목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금) (월, 수, 목)	(월, 수,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최윤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신영		*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최정석		* 무통중편도수술, 소아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현인영	*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13:30~15:30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서비스진료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조영업	*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종양외과	(월, 화, 목, 금) (화*) (□)	(수, 금) (월, 수, 목)					
		외과	김경래	* 대장암, 대장질환, 항문질환	월, 수	수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금) (월, 수, 목)		(월, 수, 목)			
	최선근	* 대장암, 항문질환, 항문질환, 대장암	화, 목	금		박신영		*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부인암	산부인과	김연수	* 유행성, 유행성, 미용수술, 미용수술, 피부영양제	월, 금	수	*13:30~15:30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외과	안승익	* 횡경막,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수, 금, 목)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암 다학제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도행	* 담도, 횡경막, 위·대장내시경	화	월, 금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외과			안승익	* 횡경막,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수, 금)	월, 금		정신과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금)	(□)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 (1, 3주)	암 다학제											
	류정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수, 목)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남해성		* 해외연수(2015. 9. 1~2016. 8. 31)														
	외과		김정택	* 폐절단,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화			김명욱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목	월				
	윤용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최광성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신정현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 (3, 5주), 화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변지원		* 피부 양성종양,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관리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 흉선암	월, 금	화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신경외과, 인면경련, 3차신경통	월, (▲), 금	수	▲뇌종양, 인면경련, 삼차신경클리닉				
		윤용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박현선	* 뇌종양(사이베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인면경련,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수, 화, 목	목, 금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종양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윤승환	* 척추종양(사이베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수	* 골종양, 인공관절생형술, 고관절질환, 관절염	월, 수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 현황

일자	후원인	후원금	비고
2016. 5	현대에이원코퍼레이션	10,000,000	
2016. 5	반대현 님	1,000,000	
2016. 5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총원우회	5,000,000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계좌입금: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2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전국 대학병원 최초, 최대규모
보호자·간병인 없는 전문 간호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비 부담 완화 | 보호자 생활 안정 | 쾌적한 병실환경

